

# “아! 광주에 이런 곳도 있었네”

문화관광탐험대 20명  
보석같은 공간·이야기 찾아  
광주전문목 5권에 담아  
19일까지 6기 대원 모집

김세진(54) 광주 생명예술 사무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 구석 구석을 돌아보는 문화관광탐험대원으로 활동했다. 김씨의 관심 사항은 노거수와 마을 숲, 중학교 때부터 광주에 살았고, 직업 상 지역 곳곳을 둘러봤지만 4년간 활동하면서 “아, 광주에 이런 곳도 있었네” 탄성을 터트릴 때가 많았다. 그렇게 찾아낸 곳이 광산구 명곡마을 숲과 팽나무, 원일곡의 죽산박씨 회화나무다.

“유홍준 선생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탐험대원은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이들입니다. 탐험대원으로 활동하려면 무엇보다 공부를 해야해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김씨는 “늘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다 보면 훨씬 즐겁게 탐험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문화관광탐험대원으로 활동한 멤버는 20명, 직업도 연령대도 다양한 이들은 1년 동안 광주 곳곳을 탐험하며 많은 이야기를 건져 올렸다.

지난 2011년부터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탐험대는 광주의 숨어 있는 보석같은 공간과 이야기들을 발굴해 찾아냈다. 무엇보다 탐험대가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이야기와 공간들을 매해 책으로 묶어낸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전문목’은 광주 문화·관광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말 나온 ‘광주전문목 5권’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책은 ‘우리 도시 광주의 문화와 삶을 만나다’, ‘물길 따라 광주



지난해 활동한 5기 문화관광탐험대원들이 지하철에 설치된 광주 풀리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

를 건다’, ‘박물관은 우리의 거울이다’, ‘무작정 시간 여행,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52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100년 한옥 대웅전이 아름다운 광제사, 장항남 정보통신박물관, 지역민이 세운 광주 최초의 교회 삼도교회, 김봉호 가옥 등 광주 토박이들도 잘 알지 못하는 곳들의 이야기도 실렸다.

문화관광탐험대원에 도전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제6기 탐험 대원을 모집한다.

탐험대원 지원 자격은 ▲광주 거주자로서 광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 ▲순수한 열정과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가진 자 등이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회 이상 대원으로 활동한 이는 지원할 수 없다.

탐험대원은 광주의 명인, 명소, 명품 등 3개 소주제로 팀을 나눠 탐험활동을 진행한 뒤 탐험 후기를 작성하며 소정의 활동

비가 주어진다. 탐험대가 발굴한 문화 콘텐츠는 ‘광주전문목 VI’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오는 19일까지 이메일 접수(jar7179@naver.com)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15명을 선발, 3월 초 발대식 및 워크숍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미술작품 만들어지는 과정 보여드려요”

주안미술관 3~29일 ‘라이브 페인팅’

미술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독특한 전시가 열린다.

주안미술관이 2016년 신년 기획전시로 ‘라이브 페인팅(Live Painting)’전을 기획했다.

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전시장 벽에 설치된 4미터 길이 캔버스에 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그리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 참여작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미술관은 캔버스만 마련했을 뿐 모든 걸 작가 자율에 맡겼다. 작가들은 미술관이 열리는 시간 아

무때나 찾아와 작품을 그리면 된다.

미술관은 전시가 끝나면 작가별로 캔버스에 그려진 작품을 나누어 액자에 넣어 연말 자체 개최하는 아트페어 전에 재전시할 예정이다. 같은 전시를 앞으로 1~2회 더 개최해 작품을 모은 후 판매를 해 수익금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4년 갤러리도 먼저 문을 연 주안미술관은 1년여 동안 다양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지난해 12월 광주시로부터 정식 미술관으로 승인받았다.

문의 062-223-2083.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이승철 시집 ‘그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펴내

함평 출신 이승철 시인이 네 번째 시집 ‘그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도서출판b)를 펴냈다. 2006년 세 번째 시집 ‘당산철교 위에서’ 이후 10년 만에 발간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오롯이 보여준다.

제목이 말해주듯 시집은 비장한 목적의식을 견지하며 살았던 지난 시대에 대한 비망록이다. 또한 자본의 굴레에 얽매인 한 존재가 토해내는 뼈아픈 고해성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인은 시대적 진실을 증언하면서도 목청을 세우기보다, 풍자의 프리즘으로 세태를 조망한다.

이 과정에서 시인의 눈길은 시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노래한다. 못다 한 사랑과 이별, 어머니의 죽음 등 시인이 직면했던 세상사를 모티프로 생존의 의미를 성찰한다.

아울러 시인은 지난 시절의 한국문

단의 이면사도 펼쳐 보인다. 고인이 된 서정주, 김현, 조태일, 김남주 시인 등의 삶 그리고 현존하는 고은, 김지하, 김사인, 이재무, 임동화 시인 등 당대 문인들의 에피소드도 형상화되어 있다. 시인은 ‘저자의 말’에서 “세상과의 불화를 자청하며 시를 써온 지 33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침묵의 돌이 꽃으로 피어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다.

한편 이 시인은 1983년 무크지 ‘민’의 ‘로’ 등단했으며 시집 ‘세월아, 살아’, ‘총알택시 안에서의 명상’을 펴냈고 현재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문집 번역서 3책·교감표점서 2책 출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운호·철학과 교수)이 최근 한국문집 번역서 3책과 교감표점서 2책을 출간했다.

지난 2010년부터 조선대학교 교정연구원과 권소시업을 이취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을 수행중인 호남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팀은 이로써 번역서 8책, 교감표점서 2책 등 총 10책을 발간했다. 이번에 출간한 번역서는 ‘덕촌집’ 2책과

‘노사집’ 1책이고, 교감표점서는 ‘덕촌집’ 1책과 ‘제호집’ 1책이다.

‘덕촌집’은 덕촌(德村) 양득중(1665~1742)의 문집이다. 양득중은 전남 영암 태생으로 경학과 성리학에 밝을 뿐 아니라 실사구시의 실학을 역설, 당시 학문 풍토의 개선을 요구했다.

‘노사집’은 노사(蘆沙) 기정진(1798~1879)의 문집이다. 기정진은 전북 순창 태생으로 18세 이후 장성에서 살았다. 기정진은 조선 후기 호남의 학맥을 이은 대표



문인으로서 독창적인 리(理)의 철학세계를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제호집’은 제호(霽湖) 양경우(1568~1638)의 문집으로, 전남 남원 태생인 양경우는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가했으며 당시 문단에서 문예적

실력을 인정받았던 문인이다. 이와 같은 호남권 문집의 지속적인 번역은 향후 ‘호남학’과 더 나아가 ‘한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홍선표 교수 국립광주박물관 ‘의재 허백련’ 강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 3월 1일 오후 3~5시 교육관에서 특별전 ‘전통회화 최후의 거장-의재 허백련’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을 처음 열리는 이번 강좌는 ‘호남의 전통회화’와 ‘의재 허백련’이라는 주제로 홍선표(사진)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한다. 홍 교수는 조선말기 회화에 유행한 남종화를 근현대 호남회단에 계승시킨 의재 허백련의 위상을 알려주려 예정이다. 또 광주가 예향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허백련의 예술세계를 살펴본다. 홍 교수는 홍익대학교에서 한국회

화사를 공부했고, 일본 규슈대 대학원에서 근세 한일 회화교류사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선시대 회화사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회화와 근대화회의 통시성, 동아시아 회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학식을 기반으로 밀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우현학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570-7031. /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2천만원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양중용, 배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싸고 좋은 물건**

주인직매 H.010-3605-5000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와5필지
- 26286평(13만평중 1/5 지분)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3천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경매, 낙찰물건 매매**

▶사건번호 - 2015타경1564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광산리 732-1번지

▶감정가/시세-14억5천만원

▶낙찰가-7억3천만원(입찰4명)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 지상4층

▶1층-음식점 및 숙박시설, 2~4층-숙박시설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현재 휴업상태

▶유치권해결, 명도완료,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요양원 등등 모든 용도 가능

▶대출-6억 3천만원 확정, 법인체 인수 가능

▶매매가-협의

▶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